

# “농기계 관리도 이젠 스마트하게!”

### 장성군, 스마트 빌리지 사업 일환 전국 최초 휴대폰 기기 정보 확인 인공지능 과잉선별기 실증 증강현실 ‘스마트 관광’ 사업도

“농기계 관리도 이젠 스마트하게!” 장성군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농기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진 농업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이 지원사업으로 보급 중인 농기계를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정보무늬(QR코드) 검색만으로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동력분무기·트랙터 로더 등 소형 농기계, 지게차·농업용 동력운반차·농산물 건조기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한 장비들을 정보망에 등록했다.

사고 발생 시 응급신고 단추만 누르면 장소와 농기계 정보가 119상황실로 즉시 전송된다.

현대전화로 해당 농기계 사진만 촬영하면 기초자료와 연동해 장비 사후 관리대장이 자동 생성된다.

장성군은 이러한 시도가 전국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비 6억원 등 사업비 8억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스마트 빌리지’ 공모에 선정돼 확보했다.

정보통신 분야 전문업체 3곳이 사업에 참여했다



장성군이 전국 최초로 스마트 농기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목을 끈다. 군에서 임대서비스를 하는 농기계. <장성군 제공>

다. 장성군은 인공지능 기반 과잉선별기, 증강현실 기반 ‘스마트 빌리지 관광’ 사업도 농기계 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사업 과제로 채택했다.

컴퓨터 자가 학습 기술을 활용해 사과, 토마토 등 2개 품종을 과실 상태에 따라 자동 선별하는 기기를 제작했다.

장성 대표 관광지인 황룡강변, 장성호 수변길에 총 5개의 증강현실 체험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전국 최초 사례인 농기계 관리 체계를 필두로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대나무골 담양의 천년 역사·문화 한곳에’

### 담양군 ‘담양군사’ 발간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나무골담양의 역사와 문화, 지리를 한 데 모은 ‘담양군사(郡史)’(사진)가 나왔다.

담양군은 담양이라는 지명이 지어진 지 1000년을 기념해 3년여 작업 끝에 ‘담양군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담양군사는 광복 이후 4번째로, 광복 후 지난 1980년과 1994년, 2002년 등 3차례에 걸쳐 ‘담양군지(潭陽郡誌)’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바 있다.

전체 5권으로 구성된 이번 군사는 담양군의 역사와 문화 및 문화재, 인물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권당 800페이지 안팎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담양군은 군사편찬을 위해 2017년 담양천년사 발간준비위원회를 꾸린 뒤 2019년 군사편찬을 위한 조례 제정 후 전체 24명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조현중 전 국립광주박물관장을 상임위원에 위촉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편집위는 분야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고,



집필에 참여한 집필위원은 대학교수 등 80명에 달한다.

편찬위 관계자는 “선사부터 현대까지 담양인들이 축적해 온 삶의 변화 추이를 담양인의 시각에서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군지가 아닌 군사로 명명했다”며 “특히 그동안 발굴조사된 유물유적을 토대로 담양인의 역사를 2만여년 전 구석기시대까지 끌어 올려 담양역사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나주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

나주시가 지역 아동 돌봄을 위한 가족 공동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개소했다.

나주시는 최근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 돼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개소·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 양육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이웃 간 정보 교류를 통해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열린 공동체 공간을 말한다.

2호점은 남평읍 양우내안애리 지난해 문을 연 나주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버시티 1차아파트 아름드리센터

라운지카페 리모델링을 통해 공부방, 놀이방, 프로그램실 등 70㎡(약 22평) 규모의 아동 보육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됐다.

운영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부모자녀 프로그램, 초등돌봄, 품앗이 교육, 장난감·도서 대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육아나눔터가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자녀 돌봄 걱정을 해소하고 방과 후나 방학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보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체에 기반한 아이 키움 문화 확산과 보육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매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 장흥군, 안중군 의사 사당 해동사에 ‘애국탐방로’ 개설

### 역사문화자원개발사업 첫 단계 추모역사관·추모공원 등 추진

장흥군이 안중군 의사 역사문화자원개발사업의 첫 단계로 해동사 애국탐방로 개설을 완료했다.

해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군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해마다 순국 추모제(3월 26일)가 열리는 곳이다.

군은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후손들에게 국가관과 민족관을 고취시키는 역사교육공간 마련을 위해 안중군 의사 역사문화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개발사업으로는 애국탐방로(길이 800m), 추모역사관, 추모공원, 주차장, 소공원 조성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애국탐방로 개설공사는 기존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해 수확여행, 관광객 등 추모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3월 중 준공될 예정이다.

추모역사관 신축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BF·에비인증)을 받은 이후 4월부터 추진된다.

추모역사관은 독립운동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근대 건축물의 형태로서 독립투쟁의 역사적 현장



장흥군 장동면에 있는 해동사 전경. 장흥군은 해동사 일원을 역사문화자원으로 개발한다. <장흥군 제공>

을 경험하고, 안중군 의사의 숭고한 의지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향후 건축공사와 연계해 추모역사관 내·외부, 추모공원, 애국탐방로 등 안중군 의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지역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설치해 2023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안중군 의사 선양사업 9대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안중군 의사의 애국정신과 그 뜻을 기려 문림의향의 메카 장흥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화순군, 84억 들여 동북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

화순군이 이서면과 백야면 12개 마을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동북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단계)’을 본격 추진한다.

화순군은 사업비 84억(국비 24억·군비 60억)을 투입해 이서면 4개 마을(청량·신기·야사3리·보월2리), 백야면 8개 마을(옥2리·용곡1리·용곡2리·임곡·다곡1리·송단2리·이천1리·노치) 노후 하수도를 정비한다.

지난달 착공한 정비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대상 마을 노후 하수처리 시설 12곳(개량 11곳·신설

1곳)과 하수관로 2889km 12개 가구 배수설비 정비를 목표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북천의 수질 개선과 동북호 유역 주민의 보건 위생,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사로 인해 다소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공공수역 수질개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1522-9341